



눈 내리는 교정 광주·전남지역에 1~5cm의 눈이 내린 14일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교정을 걷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5일 서해안과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는 등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휴일인 17일부터 추위가 다소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수기자 jeans@

총선 코앞인데도...“통장 안할래요”

선거철 귀한 대접 옛말...선거법 강화에 기피현상
업무량 늘고 처우 그대로...광주 10여곳 공석 재공모

4·13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표밭의 최일선을 누비는 마을 통장들의 인기는 시들하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통장 모집시 경쟁이 펼쳐질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지만 이제는 선거철을 앞두고 진행되는 공개모집에도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를 거듭하는 등 격세지감이다. 통장들 입에서는 “갈수록 업무는 늘고 처우는 그대로인데 다 자칫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는데 선거철이라고 별수 있느냐”는 반응이다. 14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서구 화정1동 14통을 비롯한 50여곳에서 통장 공개모집이 진행 중이지만 경쟁률은 기껏

해야 1대1 수준이다. 광산구 신창동 32통, 서구 화정 10통 등 10여곳은 1차 모집 공고기간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아 재공고가 나갔다. 아예 전임 통장의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새로운 통장이 뽑히질 않아 공석 중인 곳도 10여곳에 이른다. 통장 모집 경쟁이 시들한 이유는 통장 활동비 월 24만원 등 처우는 예년 수준인데 복지분야 등 업무량은 되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약간의 활동비와 고등학생 자녀에 한해 일부 지원되는 학비 보조 혜택이 있더라도 전입신고 사후 확인, 복지 수요자 발굴, 구보 비치, 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민방위 통지서 전달, 대

청소 등 각종 행사 동원, 행정사항 전달 등 헤아릴 수 없는 자잘한 업무를 감당하기엔 버겁다는 것이다. 혼탁했던 선거 문화가 과태료 폭탄, 신고자 포상금제도 도입으로 비교적 투명해진 것도 통장들의 인기를 시들하게 만들었다. 지난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금품·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이 도입되면서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 밥값, 떡값, 여행 제공 등을 제공하려고해도 통장들이 먼저 몸을 사릴 정도다. 통장 기피 현상은 아파트보다 주택 밀집 지역이나 영구임대 아파트, 서민거주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동 주민센터와 주민을 연결하며 행정사항을 전달하는 통장은 일반적으로 250~500세대를 맡는데 주택지역의 경우 이동거리가 길고 서민층이 사는

마을은 복지 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통장들을 향해 “고생한다”며 따뜻한 말씨를 건네주던 주민들도 찾아보기 힘들게 됐고 원룸촌 밀집지역의 경우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각종 통지서를 건네기도, 주민과 대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구 통장협의회 회장 김광식(56·동천동)씨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선거철을 앞두고 진행되는 통장모집에서 서로 말쑥했다고 아우성이었는데 이제는 사정해서 통장을 맡기는 형편”이라며 “민생 최일선을 누비는 통장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5개 자치구 95개 동에는 2296통에 2264명의 통장이 활동 중이며 32곳은 임기 만료, 재건축 지역 등으로 공석이다. 임기는 2년이며 2회 연임이 가능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독서토론열차학교 등 핵심사업 속도...누리에산 대응 주목

장만채 교육감직 지위 유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정치자금법 위반 폭쇄’에서 벗어났게 됐다. 지난 2013년 5월 1심 판결 이후 2년 넘도록 전남 교육계 안팎에 남아있던 불안 요소가 사라지면서 현안 사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게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장 교육감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 확정되면서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장 교육감이 연루됐던 정치자금법 사건은 그동안 핵심 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는 게 교육계 안팎

의 분석이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향후 현안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장 교육감은 특히 선상무지개학교·독서토론열차학교 운영 등 핵심 사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농어촌학교 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교육청이 올해 빠듯한 재정 형편

에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특성화고 취업처 발굴(4억8000만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10억), 도서벽지학교에 대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2억)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교육청 안팎에서는 다만, 유죄 판단을 받은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에 대해 “미숙한 행정처리에 따른 것”이라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해질 17:43
달출 10:58 달짐 23:25

17일부터 추위 풀려요

일부지역에 새벽과 아침 사이에 눈 또는 비가 오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2/7	보성	맑음	-5/7
목포	맑음	0/7	순천	맑음	-2/8
여수	맑음	1/7	영광	눈/비온후맑	-3/6
나주	맑음	-5/7	진도	맑음	-2/8
완도	맑음	-1/9	진주	맑음	-2/6
구례	맑음	-5/7	군산	맑음	-2/5
강진	맑음	-4/8	남원	맑음	-4/6
해남	맑음	-4/9	축산도	맑음	3/8
장성	눈/비온후맑	-5/6			

◇바다 날씨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서~북서	0.5~1.0	서~북서	0.5
남부	서~북서	0.5~1.5	서~북서	0.5~1.5
남해	서~북서	0.5~1.5	서~북서	0.5~1.0
서부	서~북서	1.0~2.0	서~북서	0.5~1.5
남해	서~북서	1.0~2.0	서~북서	1.0~1.5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5:42 18:11	10:50 23:23
여수	00:24 12:49	06:18 19:00

◇주간 날씨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22(금)
-2/9	0/6	-2/3	-4/1	-4/1	-3/2	-3/2

법원, 삼성家 이부진 사장 이혼 선고

17년만에 파경...임우재측 “항소”

법원이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에게 이혼을 선고했다. 결혼한지 17년 만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이사가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비공개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이혼을 선고했다. 그러나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

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이부진)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재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 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결혼 당시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연합뉴스

광주 첫 독감 바이러스 검출

개인위생 관리 철저 당부

광주에서도 옮겨 붙어 처음으로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14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수거된 호흡기 표본검체 29건 중 3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 A(H1N1)pdm09형이 확인됐다. 연구원은 매주 광주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자의 표본검체를 대상으로 원인 바이러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검출된 바이러스는 2009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유전자형이지만, 이에 대한 병원성이 재평가돼 2010년 8월부터는 일반 계절 인플루엔자로 편입돼 관리되고 있다. 정재근 연구원 질병조사과장은 “외출 후 반드시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방접종을 챙기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이미 감염된 사람은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 입을 막는 등 전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익신고요원 (부업 전업) 지원자 모집

정부지급의 수익! 중장년 일자리 창출!

청렴한 세상과 살기좋은 사회를 만드는 주역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공익신고로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국가가 발전한다!

지원 대상

만19세 이상 성인 男·女
(학력/경력/연령 제한없음)
직장인 부업, 투잡가능

활동 지역

대한민국 전 지역
(지역 제한없음)

근무 시간

시간제한 없음

공익신고 총괄본부 1666-7773,9918,6131

호 남 지 역
공 개 특 강

공익신고 지원에 문의 사항이 있으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말로하는 전화: 1636걸고 “공익신고” 말하세요